

공동체 소식



## 연중 제12주일

주님, 저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어,  
성공에 자만하거나 시련에 절망하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6월 기도지향

- 정준구 파비아노, 박혜정 카타리나 가정
- 정수한 베드로, 김주연 세실리아 가정

예수성심성월

교회는 해마다 유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과 묵상을 강조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성심께 우리 삶의 고뇌를 의탁합시다.

“성령 안에 말씀과 함께” 피정

- 6/26(금) 오후 7시 : 미사와 특강(다과)
- 6/27(토) 오후 4시 : 특강과 나눔, 안수기도(간단한 식사)
- 오스틴본당 정건석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5명의 봉사자와 함께 피정지도를 오십니다. 별도의 피정비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미사지향 봉헌을 통해 신부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려 합니다.

7월 신심미사

- 예수성심미사 : 7/3(금) 오전 10시(미사 후 십자가의 길)
- 성모성심미사 : 7/4(토) 오전 10시(묵주기도와 미사)

영명축일

주임신부님의 영명축일(사도 토마스)을 함께 기뻐합니다. 아울러 서품 1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 ‘착한 목자’로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7/5(일) 주일미사 때 축하와 애찬이 있습니다.

기타

- 오늘(6/21)은 Father's Day입니다. 하느님께 받은 소명인 부성을 마음에 새기며, 신앙의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가장임을 기억합시다.
- 오늘, 중심미사 후 평협회의 있습니다.
- 6/25(목) 오전 10시 미사는 공동체 피정 관계로 없습니다.

전례 성가

| 시 작 | 예 목 | 성 체     | 마 침 |
|-----|-----|---------|-----|
| 39  | 210 | 498/165 | 44  |

주일미사 복사

|    | 시종 복사                | 항 복사                   |
|----|----------------------|------------------------|
| 금주 | 정예찬 미카엘<br>정예진 한나    | 정병훈 보니파시오<br>고평원 프란치스코 |
| 차주 | 정병훈 보니파시오<br>정예찬 미카엘 | 정수한 베드로<br>김준영 요셉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    | 해설자      | 제1독서                |
|----|----------|---------------------|
|    |          | 제2독서                |
| 금주 | 박혜정 가타리나 | 정수한 베드로<br>김주연 세실리아 |
| 차주 | 김주연 세실리아 | 홍순익 마르티노<br>최은미 아네스 |

애찬 봉사자

|    |               |
|----|---------------|
| 금주 |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
| 차주 | 손정화, 유경애, 한춘희 |

헌금 봉사자

|    |                    |
|----|--------------------|
| 금주 |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
| 차주 | 김태중 예레미아, 문석찬 요셉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                           | 영성체 | 헌금   | 교무금  |
|---------------------------|-----|------|------|
| 6/14                      | 75명 | 413불 | 560불 |
| 김화년, 정연숙, 김진미, 김수연(총 4세대) |     |      |      |

특별헌금 : 차호섭, 익명2(합계 90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분단 상황이 장기화 될수록, 갈라진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겠다는 다짐과 함께,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하느님께 도우심을 청하도록 합시다.

### 그림 묵상

#### 민족의 화합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이르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해법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민족이 하나 되어 원대한 뜻을 펼쳐나가길 바라는 주님의 축복에 다가가기 위해 진실로 회개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정미연 소화대레사



제 1 독서 : 욥기의 말씀입니다. 38,1.8-11

<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



주 님 을 찬 미 하 여 라 당 신 의 자 비 는 영 원 하 시 다 - -

- 바다에 큰 배를 띄워 큰 물에서 장사하는 자들 이들이 주님의 일을 보았도다. 깊은 바다 속에서 그 기적을 보았도다. ◎
- 말씀 한번 하시니 광풍이 일고 높다랗게 치솟는 그 물결은 하늘까지 올랐다가 심연까지 내려가 사람들의 마음은 아송아송 녹았도다. ◎
- 곤경 속에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당신께서는 그 고생을 면하여 주셨도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사 바다의 물결이 잔잔해졌도다. ◎
- 잔잔해져 줄아라 날뛰는 그들을 희망의 포구로 이끄셨도다. 자비하심을 중생에게 베푸신 그 기적들을 주님께 감사하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5,14-17

<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35-41

<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



### “다가설 수 있는 용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와 탈출, 그리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들의 역사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 다. 그 이후에도 고난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 다. 바빌론에 의해 성소가 파괴되고 유배를 가기도 했으며, 마케도니아와 로마의 정복 전쟁의 여파로 주권을 상실한 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에게 신명기의 말씀은 분명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를 모 아들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데려오실 것이다.” 흠어진 백성을 모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이스라엘의 염원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과 함께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일치를 위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역시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습니 다.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나라를 잃는 아픔도 겪었으며 민족끼리의 전쟁을 통해 여전히 분단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에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전히 갈등은 끊이지 않고 어느 한쪽도 양보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 다.

오늘 복음은 용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냐는 베드로 사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답하십니다. 조건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 다. 용서는 조건이 없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조건이 있다면 용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이

렇게 말합니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흔히 용서받은 체험이 없다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 다. 또 사랑받은 적이 없다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신앙인들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체험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만, 한 편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넓고 자비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현실을 잊지 않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조금은 미뤄두고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용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자리하기를 기도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 가톨릭대학 어규 신부 -



### 제 3 편 자기 성화



#### 제 11장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 ‘하실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 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마르 9,23-24).

#### 【주석】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 이 말은 믿는 이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뜻이다(성경주석, 신약, 190). 마르 10,27에서는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 【설명】

어릴 적부터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다가온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

일상생활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평안하고 행복하지만, 믿음이 없을수록 불안하고 불행하다. 배우자에게 믿음이 없는 의처증과 의부증이 행복할 수 없듯이 말이다. 사도신경의 고백 ‘저는 하나님을 믿나이다.’(Credo in Deum)에는 ‘믿는 이’와 ‘믿는 대상’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안으로”(in)가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고 신뢰합니다. 내 희망을 하나님께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 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마르 16,17-18).

#### 【교회의 가르침】

▶ 신앙은 시련에 처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흔히, 신앙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한다. 악과 고통, 불의와 죽음의 경험은 ‘기쁜 소식’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며, 때로 신앙을 흔들기도 하고, 유혹이 될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증인들, 곧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로마 4,18) 믿은 아브라함, “신앙의 나그네 길에서” 당신 아드님의 수난과 그 무덤의 어둠을 함께함으로써 “신앙의 어두운 밤”까지 도달하였던 동정 마리아와 그 외의 많은 신앙의 증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4-165).

#### 【어록】

▶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힌 이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를 내 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 그러므로 저의 빈곤과 허약을 의식하고 있는 저는 매우 두렵고 겁이 납니다만 하나님께 바라는 희망으로 굳세어져서 방황하지 않으렵니 다. 원컨대 지극히 강력하신 저 십자가의 능력이 저에게 힘을 응결시켜주시어,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게 하시기를 빕니다. 저의 이 서원을 신부님의 기도로 굳혀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기를 청합니다(최양업 신부의 세 번째 편지: 1846년 12월 22일).